

“전쟁 피했다” 안도 ... 한반도 평화의 바람 부나



나흘만에 집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앞 삼곳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이 옷가지를 챙겨 대피소를 나서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민 반응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무박 4일' 간의 남북 고위급 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겼다.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회담장 소식에 귀를 기울인 지역민들은 이날 새벽 1시께 고위 당국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음을 놓았다.

이날 스마트폰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접했다는 장명숙(여·48)씨는 “남북 긴장이

군에 간 아들 걱정 했었는데... 국민 불안 떠는 일 다신 없길 더 이상 대립 말고 대화로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어서 크게 불안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잠수함 수습대가 발진한 뒤 위치 파악이 안되고, 전방에 포병을 2배로 증강했다는 언론 보도에 긴장이 됐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됐으니 이제 마음이 놓이고, 이번 기회에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원칙론’이 관철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그동안 반복돼온 ‘북한의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야당을 겨냥해 정치권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의 합의는 대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회담 대표로 나선

여 “안보 원칙론 통해” 야 “정상회담 이어져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단호함과 인내심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그동안 원칙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남북관계가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라면서 “미온적인 대응, 보상 위주라면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미·중·일 반응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남북합의 환영 속 한반도 긴장완화 기대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점점지대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단순히 확

특히 전방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안도감이 더욱 컸다.

군사충돌이 빚어진 경기도 연천지역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아들들 둔 정모(여·51)씨는 “북한과 대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아들 걱정에 마음줄이고 있었는데,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면서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군 복무중인 아들을 둔 김경임(여·47)씨는 “매 시간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남북 협상 타결 소식에 모든 걱정이 해소됐다”면서 “이번 회

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 군사충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새벽까지 관련 속보를 쫓아다니며 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남기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전쟁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생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남북한이 더 이상 대립하기보다 대화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북한이 유감은 표명했지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연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 등을 통해 “남북 공히 윈-윈(win-win)한 회담”이라며 “이번 합의를 기본으로 더 큰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한다. 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북한)과 한국이 긴 협상을 거쳐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는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과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실행돼 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연합뉴스

광주시 청소년 대상 후보자 공모

광주시는 25일 “제11회 광주시 청소년 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부문은 대상과 효행, 선행, 민학, 장애인, 예·체능, 국제화, 봉사 등이며 후보자를 추천받아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613~2291)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순께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에 진돗개 아닌 개도 반입 허용된다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발표

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반입이 제한됐으나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진도군에 반입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

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울연말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m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 허용 규모를 200m에서 300m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 시 1000m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 일정 규모(2000㎡) 이하 체험관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과제 중 5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를 술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해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또 와인 제조 시 개당 100만원 안팎인 오크통 대신 5만원 내외의 오크통과 오크바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증-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